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5. 26

주간 달러/원 동향(5/19~5/23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초반, 지난 17일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달러인덱스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 위험회피 심리 고조 등으로 환율은 1,400원대에 근접하며 출발. 이어 미국과 일본 간 환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엔화 강세에 원화 동조화하는 양상 나타내며 1,390원대 초반까지 하락
- 중반 들어서도 미국과 일본의 환율 협상을 앞두고 아시아 통화 상승에 따른 달러 약세 분위기 이어지면서 원화 환율은 1,380원대 중반 대까지 하락 추세 시현
- 후반 들어,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의 영향에 따라 달러 약세,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 반영 지속된 가운데, 미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점도 약달러 견인에 영향 미친 후, 주 후반, 미 상원에서 감세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줄곧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 가치는 강세 지속하며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지난주 후반 재차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고율의 관세 위협 및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미 재정리스크 여파 등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달러 지위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을 통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여기에 미-일간 무역협상 이후 아시아 통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 반영 등도 원화 강세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
- 대내적으로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과 저점인식 수입업체 저가 매수 가능성 등은 하단 지지 요인으로 예상

예상거래범위

1,365원 ~ 1,380원

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

1,395.1 1,401.3 1,371.8 1,375.6 -14

유로·엔화 동향 (5/19~5/23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무디스의 전주 미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'셸 USA' 지속한 영향 반영 속에 우-러 간 휴전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유로 강세 출발
- 중반 들어, 22일까지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환율 협의를 한다는 소식과 여기에 한국에도 원화 절상 압력 요청할 것 이란 전망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두 재료를 소화하며 하락 폭을 키운 가운데 유로화는 강세
- 후반 들어, 유로존 PMI 가 49.5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임에 따른 민간 경기 위축 흐름 등으로 약세 전환 후, 트럼프의 EU 상품에 대한 50% 고율 관세 위협 이후, 미국 경기침체 우려 재부각 속에 달러 약세 등으로 유로는 재차 상승 전환하며 마감



엔화 동향

- 초반, 전주 후반에 무디스의 미국 국간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드는 가운데 안전 통화인 엔화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엔화 강세 출발
- 중반 들어, 일본의 4월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했지만, 캐나다에서 개막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측 엔저 시정 관련 협상 가능성 등의 부각으로 엔화 강세
- 후반 들어, 미-일간 3차 협상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진 가운데, 미 국채 금리 오름세 진정 속 미 경기지표(PMI) 호조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100수준에 근접함에 엔화 소폭 약세. 이어, 주 후반, 미 하원에서 트럼프 감세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 달러 인덱스 약세 흐름 속, 엔화는 미-일간 3차 협상을 대기하며 강세 마감

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

1.1164 1.1375 1.1164 1.1362 +0.0197

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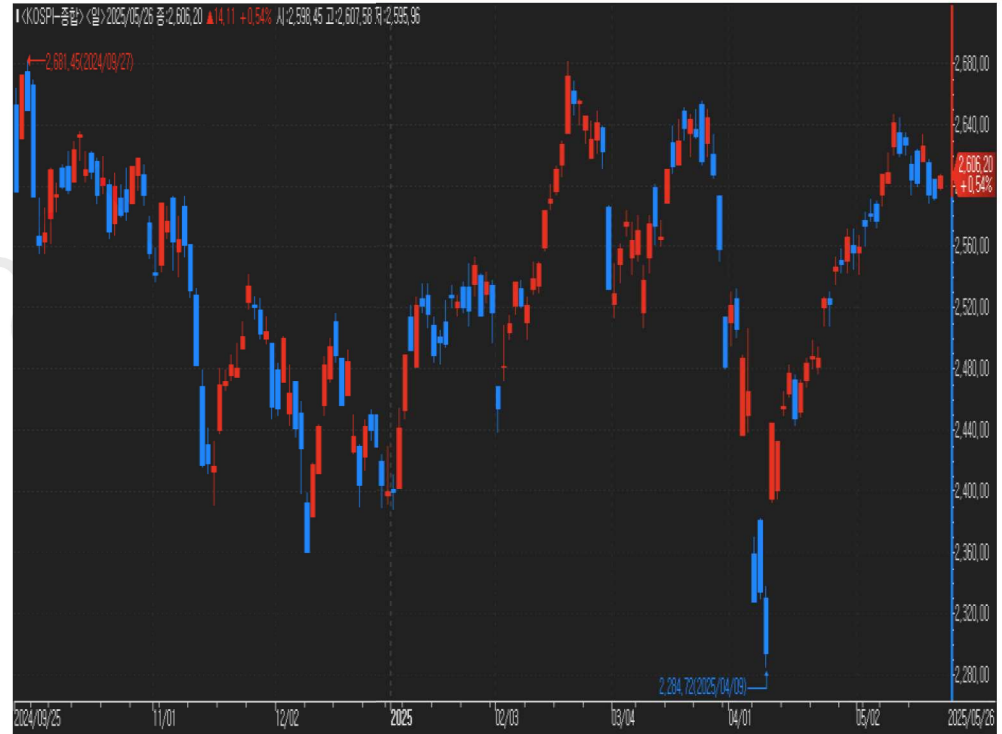
145.5 145.6 142.4 142.5 -3.03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5/19~5/23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대외 금리 방향성에 연동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,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. 이어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다소 완화된 분위기 속에 뉴욕 채권시장의 저가 매수세에 따른 금리 하락 영향이 반영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소식이 더해지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국내와 미국 모두 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장기 구간의 무거운 흐름 속 외국인 투자자의 10년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상승 재전환
- 후반 들어, 글로벌 장기 금리 급등에 상승세 나타내던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저가 매수세 강화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후, 주 후반, 전일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3년 및 10년 국채선물 모두 순매도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최근의 트럼프 관세 충격 이후 브이(V)자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에 대해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, 외국인 순매수 행진 중단 속 매도 전환 등으로 2,60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출발. 이어 코스피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약보합 흐름
- 중반 들어,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긍정적 수급 개선 요인에 힘입어 장중 강세를 지속하며 2,620선 회복 양상 시현
- 후반 들어, 미국 부채 우려와 이에 따른 미 국채금리 급등에 뉴욕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 전이 등으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, 기관 순매도 등으로 큰 폭 하락 전환 후, 주 후반,